



짧은 추석 연휴가 아쉬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KTX 정거장에서 귀경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분주히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국보다 경제·민생”

〈법무장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올 추석 연휴 광주·전남 지역민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 문제와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치솟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청년 실업 문제도 중요한 '추석 화두'였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호남 지역 민심의 변화도 컸다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여소야대인 광주·전남지역 정치지형을 반영하듯 여당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야당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특히 이 지역 출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당을 탈당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연대' (대안정치)를 결성하는 등 지역

치솟는 광주 아파트값·청년실업 문제 등 걱정 크더라 대안정치 결성 지역정가 출렁... 내년 총선 관심 많아

정가의 파동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상당했다.

지역에서 추석 명절을 보낸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에 대한 지역민의 걱정이 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의원은 15일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니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일이나 불만이 컸다"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역에서 높은 게 사실이지만, 오만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일 때는 가차 없이 심판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안정치 장병완 (동남갑) 의원은 "이번 추석에도 단연 민생·경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면서 "최저임금상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실패로 인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컸고, 소·상공인들은 더욱 침체·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의 목청이 더 고조됐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 등 내년 총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뜨거웠다. 평소에도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을 찾아 민심을 듣고 있는 대안정치 박지원 (목포) 의원은 "조국을 지켜야 문재인이 산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도 많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결과로 진전될지에 관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또 바른미래당 김동철 (광산갑) 의원은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중도 통합, 제3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변화에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최경환 (북구을)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으로 지역민의 실망감이 컸다"면서 "이제 조국 문제는 검찰 수사에 남기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영암·

무안·신안) 의원은 "농·어민들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 문제를 수 년전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야당의 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힘들어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보였다"면서 "이제 쌀값 안정,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가 민생경제에 매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염원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장 한 관계자는 "올해 추석 민심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민생 문제로 모아졌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최근 정국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권과 내년 총선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협상 논의

문 대통령 22~26일 방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최근 북·미의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 이후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 구체적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중이며 오는 24일 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이날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최선회의 무성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이달 안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인가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변함없는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닿는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미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이번 뉴욕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오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이번주 시행한다

관보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아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정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

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적으로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기원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양보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 나갑시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외 회원기업 일동

